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농림수산부의 신사고(新思考)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정부는 3월 20일 대통령령 제12,952호로 농림수산부직제개정령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농림수산부직제를 개정한 이유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정부도 농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여건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신사고를 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농업은 국가기본산업으로 주요 품목은 수입개방을 끝까지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개방하는 품

목의 경우에는 개방해도 국내시장에서 받을 불일 수 없도록 국내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둘째는, 점차로 개방해 가며 수입되는 물량만큼 국내 생산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영세농민부터 전업을 도와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지 않은 토지도 구매해 주고, 이들이 전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농촌에 농공단지를 만들어 취업을 도와 주는 것 등이다. 농민에게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즉, 농업을 안하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줄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농민문제는 농촌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했는데, 이들이야 농촌을 떠나게 할 수 없고, 전업을 해야 할 사람들이란 대부분 나이가 많아 새로운 직업훈련에 어려움이야 많겠지만, 정부가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훈련을 시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새로운 직업에 종사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젊어서는 그들 스스로가 떠피고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많아져서는 남이 그들에게 떠피우고 원치 아니하는 직업을 갖게 할 수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방법이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진대, 이번 기구개편은 어느 쪽에 정부의지가 모아진 것인지는 아직은 분명치 않다.

이번 발표된 대통령령제13조에 보면, 축산국에도 대가축과와 중소가축과가 없어지고 축산경영과와 축산물유통과로 개편되었다. 이에대한 정부의 설명은 축종별 축산행정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여 축산물의 수입자유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공감하지 않는 것은 필자의 식견이 부족한 탓인지? 얼마전 기능별 조직에서 축종별 조직으로 기구를 개편

한 축협중앙회나 축산시험장도 수입자유화를 대비해서 새로운 기능별조직으로 개편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번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도 경영과에서 축산 관측업무를, 유통과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기능별 조직분류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업계·학계에서는 수입자유화에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대책으로 생산과 유통소비를 수직통합하는 계열화를 부르짖어 왔고,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축산선진국의 경영형태가 계열화 체제이고 우리가 살 길도 이 길이라고 외쳐왔는데, 이를 단계별로 다시 분류하여 놓는다면 이것을 발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도 한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경영과 유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전에 생산과 가공이용으로 나누던 발상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과거에 이렇게 단계별, 기능별로 나누기 좋아하다가 우유를 처리한 후, 고기는 도축후에 보사부에서 그 업무를 가져갔는데, 이제 새로 생긴 유통과라는 곳도 따지고 보면 보사부 업무를 빼고 나면 생축의 유통정도나 다루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격조절업무를 유통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가격조절 기능중에는 소비와 공급조절 기능이 가장 큰 데, 이것도 가공품으로라야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터인데 유통과가 보사부 식품과까지도 업무협조가 잘 될 것인지? 그렇다면 최근 분유체화 원인이 업무가 일관성이 없이 기능별로 농림수산부와 보사부로 나누어져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같은 부내에서는 나누어도 협조가 잘되기 때문에 나눌수록 괜찮은 것인지?

닭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가공품이 수입된다면 어느 과에서 주무과가 되어야 하는지? 과거 쇠고기 수입은 대가축과에서,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은 중소가축과의 책임하에 하던 일들이 이제는 2개 과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과에서도 전담할 수 없는 것인지?

“

수입자유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은 농축산물에 애정과 사명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지, 외국과의 협상기술이나 기능별 기구개편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

이렇게 되는 것이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는 것인지? 문제가 생기면 유통이나 경영 어느 쪽도 책임을 안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한 골치 아픈 업무분장 소재도 불분명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수입을 못하도록 국경보호를 하던 전술에서 이제는 홈코트로 들어오게 불려다 놓고 유통단계에서 손을 쓰기 위해서 유통과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구개편을 기획한 분들은 깊은 생각과 심사숙고를 거쳐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믿고 싶다. 다만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거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다.

수입자유화에 대처하는 방법도 수입물량이 적다고 깔보다가 혼이 난 돼지고기통조림에서와 같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서 개방하지 않는다면 국내축산업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약대도 주인의 천막에 들어올때는 처음에는 머리만, 다음에는 앞발이, 다음에는 몸통이, 다음에는 뒷발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주인을 천막 밖으로 내쫓는다는 우화는 수입개방을 맞이하는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입자유화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법이란 농축산업에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지, 외국과의 협상기술로 또는 기능별 기구개편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